

2005년도 으뜸지기에게 물었습니다

1.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2.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로서 올해의 포부는?
3.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박영숙 (70대 으뜸지기)



1. '인생을 이모작하라'는 최근의 화두를 따라서 늦었지만 남은 인생을 유익미하게 살기 위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 70대 으뜸지기가 할 일이요? 이제는 하나의 그물코로 돌아가는 일이 아닌가요? 70대의 역할을 고민할게요.
3.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갖고 있는 현 정부의 환경무관심으로 환경운동 사상 최초로 '환경비상사국'이 선포된 상황에서 여성환경연대가 더욱 힘써야 하는 일은 풀뿌리 환경운동의 강화입니다. 여성 환경인들의 선 자리에서의 환경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회원 여러분 화이팅!

김상희 (50대 으뜸지기)



1. 자나깨나(^^) 여성환경연대를 고민 하고 있죠, 그리고 일주일에 2~3번씩 사무실에 나오고 있습니다.
2. 여성환경운동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얼까, 올해는 그 단초가 꼭 마련되어야겠다는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3. 여성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을 서로 격려하는 조직에서, 이제는 성격이 바뀌었으니 회원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모든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라구요, 여성환경 연대를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바들을 실현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환경연대 속에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꿈을 이루어나가고 싶습니다.

남미정 (40대 으뜸지기)



1. 최근에 외부에서 푸른 내일을 여는 여성들을 많이 불러서, 회장으로 글도 많이 쓰고, 강의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할에 대한 요청이 많아지는 때라는 느낌이 들어서 바쁘긴 하지만 보람도 많이 느끼고요.

또 여성환경연대 회원모집 때문에 약속도 많고, 갑자기 초등학교 남자동창들에게 연락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밖으로 다니다보면 요즘 어딜 가나 초록빛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자연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생동감 있고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2. ① 일단, 회원을 많이 모아야겠다는 것!

② 애정이 좀 더 많이 생겼고, 내용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참여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많이 들죠. 물론, 워낙 회원과 실무자들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든든한 마음으로 으뜸지기를 맡았습니다. (^^)

③ 새로 풀뿌리조직을 건설하는 일과 함께, 풀뿌리에 대한 역할이 우리 내에서 제대로 뿌리박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회원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새 마음으로 자기를 한번 더 돌아보고, 자기 내용을 충실히 만드는 작업을 하며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자체가 여성환경연대가 힘을 받고 뻗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바쁜 현실 속에서 지나치기 쉬운 우리 내면을 돌아보며, 우리의 반대자들도 수용해가는 넓고 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더욱 실천적인 회원들이 되어야겠지요?

김종남 (30대 으뜸지기)



1. 회원확대운동에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 잘 못해서 미안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개인적 사정으로 공무를 제대로 못 보았고, 이제사 대강의 신변정리를 하고 새롭게 일하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네요.

아픈 아이들이 없는 세상, 새로운 초록사회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성환경연대가 선택한 가치를 지역여성들과 함께 풀어내는 일을 해야지요. 대전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여성가치, 초록세상 비전을 펼쳐보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하고 새로운 조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여성환경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운동가들이 적극 결합할 예정이지요. 부분적이고 이차적인 활동에서 새로운 사회와 정치를 향한 여성들의 활동을 전면화시키는 일에 몸을 던져볼립니다.
3. 요즘 감기몸살이 유행이네요. 모든 일의 중심에 건강이 자리잡고 있는 만큼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수진 (20대 으뜸지기)



1. 환경동아리에서 회장을 맡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 학생회관 옥상에 '하늘 농장'이라는 텃밭을 만들어서 상추, 녹두,

토마토, 부추들이 자라고 있어요~! (사진 보이시죠? 허헛) 또, 채식 관련 활동도 하고 있어요. 학교 식당에 상시적인 채식메뉴가 도입되는 그날까지!! ㅋㅋ

최근에는 시험과 과제들에 둘러싸여 더욱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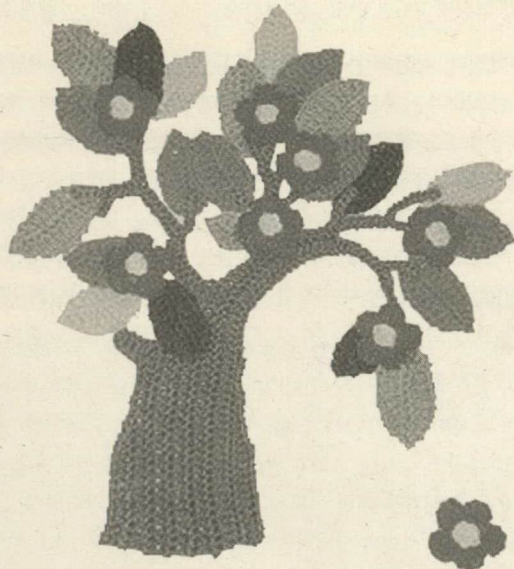
2.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니깐, 배우는 한 해가 될게요~ 많이들 가르쳐 주세요 ^^ 친구들을 꼬셔서 20대 회원수를 늘리는 그날까지!!! ㅋㅋ

3. 놀아주세요 ~)<

여성환경연대 소식지
2005년 봄호 _ 통권 23호

여성이 새로 짜는 세상

새로 피어나는
여성환경연대



한길순 회원님의 작품: 「봄」

 **여성환경연대**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2005년 봄호(통권 23호) 격월 발행 • 발행일: 2005년 5월 10일 • 발행처: (사)여성환경연대 • 발행인: 박영숙, 김상희, 남미정, 김종남, 김수진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8호 전화: (02)722-7944 전송: (02)723-7215 홈페이지: www.ecofem.net E-mail: kwen7944@hanmail.net

[illegible]

판매가 : 10,000원 (10권 이상 구입시 20% 할인)

∴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연락주시길 바라며, 통장 잔액부족으로 미납된 분들이 많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조금만 더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